

#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 현상과 그 기법에 대한 연구

서 봉 하

용인송담대학 스타일리스트과 조교수

## An Investigation of the Phenomenon of the Decentralization of the Asian Look and its Method

Bong-Ha Seo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tylist, Yong-in Songdam College

(투고일: 2010. 9. 28, 심사(수정)일: 2010. 12. 1, 게재 확정일: 2010. 12. 22)

### ABSTRACT

Decentralization is an effort to liberalize people from its character of neutralizing or restraining people while indwelling in the previous thought system. Decentralization in fashion is one of the phenomenon of post-modernism fashion,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de-culturalism, crossover, abolition of rank, and etc, and it is in line with Asian look which includes orientalism fashion. The study intends to consider the Phenomenon of Decentralization of Asian Look and its Method depicted in the western fashion. The study focuses on documentary data, and the it is held with the basis of Asian look shown in western fashion. If ideology which influenced the formation of folk costume of Asia, Asian look is the dissolution of such ideology, and post-modern amusement is substituting it. The most conspicuous characteristic of decentralization phenomena of Asian look is pastiche which is a combination and reallocation of external style of many cultural zones and many folk costumes, and it shows mutual irrelevance, and it is a neutral imitation which has internal meaning and humor disappeared. Also, Asian look shows characteristics of parody and irony, which are reversal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value which is expressed through methods of addition, modification, distortion, exaggeration, inversion, dissolution, and etc. Parody which is expressed through imitation regarding previous style shows effect of humor or satire, but its characteristics show that it expresses respect or admiration regarding the original. The method of irony is showing sarcasm with ironical method regarding the peculiar style of Asian folk costume, and it pursues unexpected shock and joy,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orientalism fashion. Expansion and constancy of Asian look reflects the interest regarding folk of Asia and Asia, and it is a movement which intends new attempt by abolishing stereotype, and furthermore, it is expressing liberty of humans.

Key words: Asian look(아시안 룩), decentralization(탈중심화), irony(아이러니),  
orientalism fashion(오리엔탈리즘 패션), parody(페러디), pastiche(흔성모방)

## I. 서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일련의 위기적 상황들은 서구인들의 인식세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흐름의 등장을 가속화시켰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서구문화를 지배해온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문학이나 예술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을 가리킨다. 문화의 반영이자 시각적 조형물인 복식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왔는데, 특히 아시안 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탈중심화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양식 중 하나이다. 탈중심화는 중심에 있는 개념들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을 폭로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상체계에 내재하면서 인간을 무력화하거나 속박하는 성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노력을 말한다. 패션에서의 탈중심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현상 중 하나로 탈 문화, 탈 장르, 탈 젠더, 탈 계급 등의 현상과 밀접하며 오리엔탈리즘 패션을 비롯한 아시안 룩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아시안 룩은 동양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가졌다며 하여도 서양의 복식이며 서양의 패션이다. 서구의 아시안 룩이 동양의 낭만과 신비로움, 자연주의에의 동경심 등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으로 유희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며, 지역과 문화, 장르, 계급간의 경계 해체 등을 특징으로 하는 탈중심화의 현상이 목격된다. 그 결과 아시안 룩은 절충을 선호하는 난잡성으로써 여러 문화권과 여러 복식양식이 결합된 혼성모방, 숭고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의 복식에 대한 패러디, 그리고 의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아이러니 등의 특징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본 연구는 서구패션에 나타난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 현상과 그 기법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하며, 2000년대 이후의 서구패션에 나타난 아시안 룩을 바탕으로 연구한다. 연구목표로는 첫째, 아시안 룩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탈중심화 현상에 대한 고찰, 둘째,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 현상에 대한 고찰, 셋째,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 기법과 메커니즘이 대한 연구, 넷째,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에 대한 논의 등이다. 본 논문은 아시안 룩의 중요한 특성인 탈중심화의

속성과 그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이를 통하여 아시안 룩의 메커니즘과 속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II. 아시안 룩과 탈중심화

### 1. 아시안 룩과 오리엔탈리즘 패션

아시안 룩은 아시아 민속복식의 이미지, 장식, 문양, 색상, 의복의 구조나 실루엣 등의 특징을 차용한 서구 패션의 한 양식이다. 아시아를 저급한 타자로 간주하는 서구중심주의<sup>1)</sup>에서 비롯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패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아시아를 저급한 타자로 인식한 오리엔탈리즘 패션 역시 아시안 룩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서구패션의 아시아적 취향에 대한 관심은 그 역사가 고대로부터 시작된 오랜 것이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아시안 룩의 유행에 불씨를 당긴 것은 서구사회에서 기독교적 근대사상의 퇴락과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가 출현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동양에 대한 서양의 관심은 먼 곳에 있는 '타자'로 도파하려는 욕망에 의해 생겨나며, 그곳에서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고상하고 환상적인 수단을 발견하려고 하거나 꿈을 찾고자 한다.<sup>2)</sup> 20세기 서구의 패션은 탈중심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보편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타자의 복식문화에 관심을 두게 된다. 대표적으로 서양의 패션에서는 심상적 지리, 심상적 역사, 심상적 대상을 소재로 한 오리엔탈 룩의 창조를 들 수 있다.<sup>3)</sup> 아시안 룩은 20세기 초 Paul Poiret가 신체를 구속하는 서양복식을 버리고 비구조적인 풍성한 스타일의 의상을 유행시키면서 본격화 되었으며, 이후 아시안 룩은 국제 사회의 변화와 사건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다. 물신주의에 대한 항거, 신비주의, 공동체 의식, 사랑, 현세지향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등의 사상을 표방한 60년대의 히피즘<sup>4)</sup>은 정신의 가치가 높은 동방에 대한 관심으로 아시안 룩을 유행시켰고, 70년대 이후에는 일련의 일본 디자이너들이 비 서구를 타자의 위치에 두려는 서구적인 요구 사이에서 서구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패션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며, 이는 결국 일본풍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sup>5)</sup> 20세기 말 이후에는 이슬람과 서구의 대립 속에서 이슬람 풍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경제적 성장과 동시에 신비스러움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인도와 중국풍의 유행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세계 패션계의 여러 디자이너들과 유명 인사들이 '아시아의 스타일'을 받아들여 파급시켜 나갔으며, 문화 전반에 걸쳐 아시아의 문화들이 소개되고 상호 교류하면서 아시안 룩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sup>6)</sup>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회적 특성에 맞춰 아시아를 괴상하고 저급한 타자로 인식하는 것에 기초한 오리엔탈리즘 패션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오리엔탈리즘 패션은 차도르를 비롯한 정숙한 아시아 복식을 왜곡시켜 가슴이나 신체의 상당부분을 노출시키거나 우스꽝스럽게 부분을 변형 또는 과장시켜 왜곡한 형식, 괴상스러운 이미지나 신체를 구속시키는 이미지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며 확산되어 왔다.

아시아의 많은 곳에서 서양의 복이 일상적으로 착용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한복이나, 중국의 치파오, 일본의 기모노, 베트남의 아오자이, 인도의 사리, 동남아시아의 사롱 등의 전통 복식은 각 나라에서 다시 부흥을 맞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디자이너들에게 지속적인 감흥을 주고 있다. 아시아의 복식은 서양의 패션보다 멀Hong미롭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더 여성화 된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식민지 시대의 경향도 있어 왔다.<sup>7)</sup> 그러나 점차 그러한 경향이 적어지게 되었고, 정보통신의 혁신적인 발달로 서양 패션과 아시아 패션의 교류가 너

무 광범위해져서 구태여 두개를 구분 짓는 것은 이제 쓸모없게 돼 버렸는지도 모른다. 이제 아시아의 스타일은 세계 패션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패션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 2. 현대 패션의 탈중심화 현상과 기법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일련의 위기적 상황들은 서구인들의 인식세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1960년대에 서구사회에서 유행한 히피, 성 개방, 학생운동, 민권운동, 반전운동, 여성운동, 자연주의운동 등과 같은 반 문화운동(counter-culture movement)으로 표출되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흐름의 등장을 가속화시켰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근대 서구문화를 지배해 온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문학이나 예술 또는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을 가리킨다.<sup>8)</sup>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견해는 18세기부터 진행되어 온 계몽주의적 가치를 극대화 시킨 모더니티에 이은 사상적 변천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에 태동하여 80년대에 전성기에 달한 문화와 예술 각 분야에서의 모더니즘이 대한 반성과 극복을 내용으로 하는 반동(反動)적 움직임<sup>9)</sup>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표 1>은 모더니즘과의 대비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이 지향하는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Ihab Hassan의 시각<sup>10)11)</sup> 중 일부이다. Mike Featherstone은 예술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으로 일상생활과 예술 간의 경계

<표 1> 이합 하산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비교

모더니즘(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형식/폐쇄적 (from/closed)	반형식/개방적 (antiform/open)
목적 (purpose)	유희 (play)
계급질서 (hierarchy)	무질서 (anarchy)
창조 (creation)	탈 창조 (decreation)
총체화 (totalization)	해체 (deconstruction)
집중화 (centering)	분산화 (dispersal)
장르/경계 (genre/boundary)	텍스트/상호텍스트성 (text/intertext)
선별 (selection)	조합 (combination)
형이상학 (metaphysics)	아이러니 (irony)
확정성 (determinacy)	불확정성 (indeterminacy)

와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간 경계 와해, 코드혼합과 절충을 선호하는 스타일의 난잡성, 표면적인, 깊이 없는 문화의 친양과 혼성모방(pastiche), 패러디(parody), 아이러니(irony), 유희성, 독창성의 쇠퇴<sup>12)</sup> 등을 들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으로 패션분야에서도 디자인의 중요한 속성들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차례로 붕괴되는 탈중심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타 문화에 대한 관심, 오리엔탈리즘, 계급의 해체, 성의 해체, 소재의 다양화, 과거로의 회귀 등이다. 김민자<sup>13)</sup>는 20세기 후반기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패션은 소비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아이디어, 욕망, 그리고 신념에 대한 미적 표현이므로 이러한 미적 입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취향의 차별화이며, 유행하는 다양한 패션을 죽음으로써 즐거움과 쾌를 실증하고 인간의 자유를 성취한다. 둘째,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 상황에서는 다원주의가 확연히 드러나며 디자이너 개인의 표현 의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컨대, 복식양식의 정신사적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다. 셋째, 포스트모던 상황에 있어, 대중문화의 확산과 기계 기술주의는 프레타포르테의 체제를 확고히 하며, 패션의식은 개개인에게 파급되며 패션에서의 민주화를 성취하고 있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탈중심화 현상으로써 이성과 감성이라는 양극화의 대립상태에서 융합, 해체, 그리고 초월성이라는 영원성의 반미학을 추구하고 있다. 인간은 불완전한 미적 취향, 왜곡, 심지어 추함, 풍자, 아이러니, 혼성모방, 키치, 패러디를 통하여 고도의 긴장감을 경험하는 숭고미를 추구하며 이를 통하여 고정된 관념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추구한다.

20세기 후반 탈중심화의 경향과 함께 아시안 룩을 포함한 에스닉 룩의 유행이 확산된 것은 서구사회에서 기독교적 근대사상의 퇴락과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가 출현했던 것과 맥을 같이하며, 모더니즘 현상으로 쇠퇴하였던 민족 복식양식의 고유성 회복과도 맥을 같이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1960년대에 본격화되어 1980년대 들어 절정에 달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아시안 룩이 1960년대부터 서양 패션에 자주 등장하였고 1980년대 들어서는 그 절정에 이르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장식성·단순성·기능성의 특징을 떠는 모더니즘 복식의 확산은 각국 민족복식 양식의 쇠퇴

를 가져왔으며,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민족 복식의 고유성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켰다. 아시안 룩은 아시아 각 지역의 민속복식에서 '내용'이 아닌 '형식'을 차용한다. 즉, 복식 내부에 담겨 있거나 내포하는 의미·사상·종교적 상징 등의 '내용'은 사라지고, 표피적인 색상·장식·문양·실루엣·구조 등의 '형식'이 주로 아시안 룩에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 복식의 형식을 차용한 아시안 룩은 탈중심화 복식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개방적, 해체적, 불확정적이며 때로는 무질서하고 정신분열적이기까지 한 유희적인 특징을 띤다.

### III.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 현상

아시안 룩은 동양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가졌다며 하여도 서양의 복식이며 서양의 패션이다. 창작의 정신은 창작 기법에 의해 소멸될 수 없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서구가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고 하여도 중국의 미학자 장파(張法)가 역설한 것처럼 도(道), 천(天), 무(無), 이(理), 기(氣), 진여(眞如)의 개념과 정체공능(整體功能)의 우주관, 모호성 등의 동양 사상과 정신을 바탕으로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동아시아의 복식을 서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 서구의 아시안 룩과 아시아 민속복식의 차이는 이러한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발생한다. 서구의 아시안 룩은 동양의 낭만과 신비로움, 자연주의에의 동경심 등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이전 보다 더 동양 복식의 외적 형식과 유희적 특성에 몰두한다.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 현상은 이러한 서구패션의 경향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 그 확산시기와 특성이 포스트모더니즘과 흐름을 같이한다. 아시안 룩은 절충을 선호하는 난잡성으로, 기법적으로는 여러 문화권과 여러 복식양식이 결합된 혼성모방과 숭고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의 복식에 대한 패러디, 그리고 의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아이러니 등의 특징을 띤다. 본 Ⅲ장에서는 아시아의 복식을 차용한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 현상과 기법을 혼성모방, 패러디, 아이러니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 1. 혼성모방으로서 아시안 룩

포스트모더니즘의 텔중심화 현상은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으로 잘 나타난다. 한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존재하는 현상인 상호 텍스트성 중에서 여러 텍스트를 끌어 모아 조합한 것이 혼성모방이다. 혼성모방은 내적인 표현이나 의미에 관계되어 있기 보다는 내용을 상실한 공허함으로서, 조합된 문화적 단편들 간의 무관계성과 관련이 깊은 모방의 형태로 나타나며,<sup>14)</sup> 독창성을 상실한 채 오직 기존의 텍스트에만 의존한 '저자의 죽음'이나 '실종'의 현상이다. Fredric Jameson에 따르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모더니스트처럼 독창적인 작품을 생산해내기보다는 옛날의 문화·사회적 생산물을 과장된 브리콜라주 방식으로 끌어모아 재배열 할 때 때문이다.<sup>15)</sup> 모더니스트들이 중요시하던 독창적인 창조성이나 목적성은 거의 사라졌으며, 텍스트 자체보다는 메타텍스트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즉, 조형예술에서는 작가의 의도와 내면적 정신보다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즐기는 감상자나 사용자들이 더 중요시 되는 것이다. <그림 1><sup>16)</sup>은 1956년 Richard Hamilton의 콜라주 작품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ng?'이다. 예술 쇼를 홍보하는 잡지광고였던 이 작품은 각기 다른 다양한 이미지를 한 화면에 경쟁적으로 흔재시킴으로서 기존의 여러 텍스트를 모방한 저자의 죽음이라는 혼성모방의 기법을 극대화 시킨 작품이다. 이처럼 혼성모방은 각기 다른 요소를 원작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용한다.



<그림 1> Richard Hamilton,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ng?, 1956.  
<http://lacollage.blogspot.com>

이러한 혼성모방의 경향은 패션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과거와 현재,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일상생활과 예술 등의 경계가 해체되면서 그 패션들이 혼성되어 조합되고 재구성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시간 또는 계층 간의 혼성이었다면 아시안 룩은 서구와 동양의 해체로서, 공간성을 초월한 모방과 조합이다. 아시안 룩은 아시아 민속복식의 재현이 아닌 단편적인 차용이며 상호 무관계성을 가지는 두 가지 이상의 단편들이 나타나는 복식의 양식이다.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의 이질적인 조합은 다원주의의 경향을 띠는 아시안 룩의 대표적인 형태로, 외적 형식의 조합으로 절충과 혼합의 산물이고, 언어적 규범이 소멸된 표피성이며, 의미를 상실한 중성적 모방이다. <그림 2>는 서구의 복식과 아시아의 복식을 절충시킨 혼성모방의 아시안 룩으로, 서구의 복식에 아시아 복식의 부분이나 문양, 장식, 소재, 색상 등을 결합한 가장 혼하게 나타나는 아시안 룩이다. 아시안 룩의 혼성모방은 서구의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복식과 아시아 민속복식의 결합에 그치지 않고, 각기 다른 세계 여러 민족의 복식 양식이 하나의 아시안 룩에 함께 모방되거나, 다양한 패션 테마와 아시아 민속복식의 요소가 혼성모방 되기도 한다. 그림 <2-a><sup>17)</sup>은 인체가 드러나는 서구의 복식에 인도의 장식과 장신구, 얼굴을 은폐한 이슬람풍의 가면 등이 결합되었다. 그림 <2-b><sup>18)</sup>는 크기가 과장된 서구의 테일러드 재킷과 광택이 있는 실버컬러에 일본풍의 꽃문양과 얼굴화장이 결합되었으며, 그림 <2-c><sup>19)</sup>는 이슬람의 검정 히잡과 로맨틱 룩의 장식요소들인 리플과 리본 등, 그리고 텔 장식이 있는 신발 등이 결합되어 있다. 그림 <2-d><sup>20)</sup>는 봄매가 드러나는 빨간색 원피스에 동아시아의 학 문양과 아프리카의 헤어스타일과 손목장식이 결합된 에스닉 룩이다. <2-e><sup>21)</sup>는 일본풍의 화장과 장식에 로맨틱한 색상과 꽃무늬가 해체주의적인 머리장식 등 다양한 요소가 하나의 복식에 혼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아시안 룩은 서구의 복식에 아시아의 이미지나 조형요소를 결합한 것이지만, 이렇게 아프리카와 같은 다른 지역의 복식 또는 히피 룩, 평크 룩, 로맨틱 룩, 키치 룩, 에로티시즘, 해체주의의 양식, 하위문화 스타일 등의 복식양식과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결합은 서구형의 복식에 두 가지 이상의 복식양식이나 사조가 결합되어 패



〈2-a〉 Christian Lacroix, Paris, 2003 S/S    〈2-b〉 John Galliano, Paris, 2004~05 F/W    〈2-c〉 Jean Paul Gaultier, Paris, 2005~06 F/W    〈2-d〉 Tristano Onofri, Milan, 2000~01 F/W    〈2-e〉 John Galliano, Paris, 2002~03 F/W

〈그림 2〉 혼성모방 기법의 아시안 룩

션의 탈중심화 현상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난잡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

## 2. 패러디로서 아시안 룩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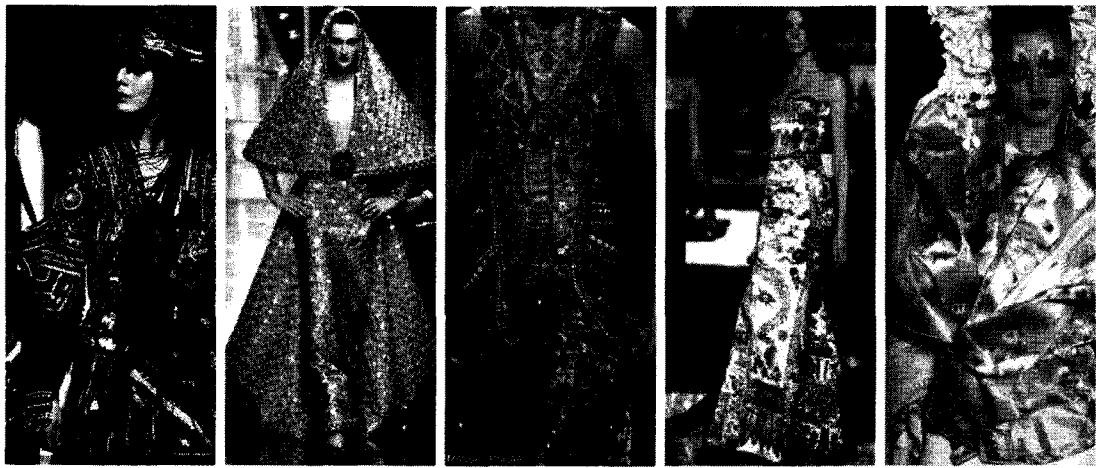
패러디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과 함께, 20세기 후반 이후 여러 예술 분야에서 주요한 창작기법의 하나로 자리를 차지하여 왔다. 친숙한 선형양식에 대한 모방을 전제로 하는 패러디를 Linda Hutcheon은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반복’으로 정의했는데 그것은 유사성보다는 차이를 특징으로 한다.<sup>22)</sup> 패러디 작품은 그 원작과 내적인 상관관계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전치·모방·왜곡·생략·반복·첨가·강조·변형 등을 통해 풍자와 해학, 은유와 의외성 등의 효과를 거둔다. 포스트모더니즘적 패러디는 유행과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냉소적 허무주의에 가깝다. 만약 모든 것이 허용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두 가지가 서로 차이가 없게 된다.<sup>23)</sup> 패러디적 기능은 메타텍스트에 해당하는 모델 작품과 그것을 기초로 만든 실제 작품 사이의 비판적 거리 때문에 가능하다.<sup>24)</sup> 패러디는 일종의 자기비평을 취하는 예술의 모방기법이다. 오늘날의 예술이 자의식 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패러디는 현대 예술에서

의 중요한 창조 기법으로 부각되고 있다.<sup>25)</sup> 〈그림 3〉<sup>26)</sup> 은 패러디로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원작인 Leonardo da Vinci의 Mona Lisa에 콧수염을 그려 넣은 Marcel Duchamp의 작품이다.



〈그림 3〉 Marcel Duchamp, *Mona Lisa*, 1919.

조형예술의 하나인 복식에서도 패러디는 다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패러디는 모방을 전제로 하는 창작기법 이므로 원작과 같은 선형 양식이 존재한다는 시간의 개



〈4-a〉 Hussein Chalayan, London, 2002~03 F/W    〈4-b〉 Haute Couture Brides, Paris, 2004 S/S    〈4-c〉 Emanuel Ungaro, Paris, 2003 S/S    〈4-d〉 Roberto Cavalli, Milan, 2005~06 F/W    〈4-e〉 Christian Dior, Paris, 2003~04 F/W

〈그림 4〉 패러디 기법의 아시안 룩

념을 갖는다. 선행 양식에 대한 모방을 통해 표현되는 패러디는 익살스러움이나 풍자의 효과를 띠기도 하지만, 원작에 대한 존경심이나 경의를 표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아시아 복식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양식을 승화시킴으로써 탈중심화의 효과를 거두는 복식이 주를 이룬다. 〈그림 4〉는 숭고한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시아의 민속복식을 서구의 시각에서 재현한 패러디이다. 패러디는 유희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풍자·비평·유머 등과 원작에 대한 경의심을 내포하므로 의미가 사라진 표피적인 혼성모방과는 차이가 있다. 〈4-a〉<sup>27)</sup>는 중국 서남부의 소수민족의 복식의 직물 패턴과 문양, 장신구 등을 패러디한 복식이며, 〈4-b〉<sup>28)</sup>는 이슬람의 전통복식과 허잡, 〈4-c〉<sup>29)</sup>는 인도의 화려한 문양과 장식을 각각 패러디 하여 원작이 되는 민속복식을 더욱 장엄하고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4-d〉<sup>30)</sup>는 중국의 색채와 문양을 패러디한 복식으로서 용과 구름, 연꽃 문양 등 다양한 문양을 흰 바탕에 청색으로 표현하여 마치 중국 원·명대의 도자기를 연상시키며, 〈4-e〉<sup>31)</sup>는 무정형의 특징을 보이는 일본의 복식을 패러디한 아시안 룩이다. 이 복식들은 화려한 아시아의 민속복식을 또 다른 시각으로 아름답게 재현하여 아시안 룩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패러디가 하나의 새로운 창작 기법임을

복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패러디 기법에 의한 아시안 룩은 아시아를 저급하고 괴상한 유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리엔탈리즘 패션<sup>32)</sup>과 가장 거리가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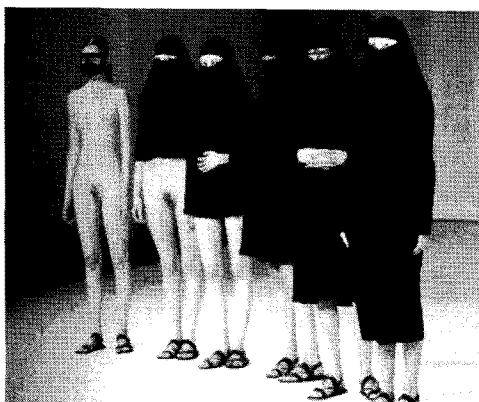
아시안 룩은 아시아의 민속복식을 유희적인 모티브나 단순한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아시안 룩이 서구의 아시아에 대한 동경과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시아의 민속복식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동양의 신비로움에서 아시안 룩의 패러디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 기법 중 패러디는 동양복식의 아름다움과 숭고한 양식에 대한 경의심과 존경심의 표현이고, 재현이 아닌 모방을 통한 새로운 예술 창조의 과정이다.

### 3. 아이러니로서 아시안 룩의 이미지

아이러니는 확대된 의미에서 패러디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패러디에 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실험성이나 유희성, 우연성 등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의외성으로 인한 충격 효과를 띠는 기법이다. 아시안 룩에 나타난 패러디는 선행양식에 대한 존경심과 아름다움에 대한 모방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아이러니는 원작을 모방하지만 그것을 역설적으로 비꼬면서 의외성의 충격을 주는 것이다. 원래 패러디

의 속성 자체도 유머와 의외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시안 룩에서의 패러디와 아이러니는 위의 설명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러디와 아이러니를 따로 나누어 고찰한다.

아이러니는 '말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33)</sup> 즉,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는 '표현과 의도의 불일치'나 '의도했던 목표와 예기치 않은 결과 사이의 불일치'를 특징으로 한다. 아이러니는 패러디와 마찬가지로, 선행양식의 모방, 다양한 방식의 변형, 강조, 왜곡, 내용의 대체나 도치, 병치 이동, 변형이동 등의 패러독 스기법을 통하여 표현되며, 충격과 의외성으로 표현하는 창작 기법으로, 패러디에 비해 좀 더 반어적이며, 빙정거림을 통한 풍자나 해학성을 가지고 있다. 아이러니는 선행양식의 내적형식이나 외적 형식에 대한 패러디의 의외성을 통해 모순과 부조화를 표현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기법의 패러디에 비하여 보다 더 유희적 속성을 지닌다. <그림 5><sup>34)</sup>는 Hussein Chalayan의 1998년 S/S 컬렉션에 선보인 복식으로, 모델들이 눈만 제외하고 발목을 포함한 온몸을 감싸야 하는 이슬람복식인 니캅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모델들은 니캅을 포함한 복식의 길이가 짧아서 상체를 제외한 나신(裸身)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온몸은 물론 얼굴까지 은폐해야하는 일부 이슬람 여성의 복식에 대한 빙정거림과 풍자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충격적인 의외성을 띠는 아이러니 기법의 복식이다.



<그림 5> Hussein Chalayan, London, 1998 S/S

아시안 룩에서 아이러니의 기법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아 민속복식 특유의 형식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비꼼으로써 의외성을 띠게 된다. 특히 <그림 5>와 같이 아시아의 일부 복식이 인체를 은폐하고 억압한다는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착안한 아이러니한 복식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슬람 민속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이슬람 룩에서 의외의 신체부분을 노출시킴으로써 의외성과 충격을 주는 아이러니의 복식을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풍성한 아시아의 복식과 미니멀 한 서구 패션경향의 결합, 아시아 복식의 부분적인 과장 등을 통해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아시아의 복식을 저급하고 괴상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서 출발한 오리엔탈리즘 패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6-a><sup>35)</sup>는 중국풍의 색상과 소재, 문양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나, 노출과 왜곡된 인체의 표현으로 의외성을 띠고 있다. <6-b><sup>36)</sup>는 이슬람 풍 복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식인데, 온몸을 은폐해야 하는 이슬람 민속복식과 같이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렸지만, 하체를 노출시키고 있다. <6-c><sup>37)</sup>는 두부를 가리면서 입만 노출을 시켰으며, 검은 줄로 인체를 휘감고 있는 복식이다. 이러한 이슬람 풍 복식들은 이슬람 여성들이 차도르나 부르카, 히잡 등으로 인체를 억압당하는 것을 의외성과 충격 효과로 비꼬고 풍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6-d><sup>38)</sup>는 퍼프소매의 블라우스에 인도의 사리를 착용하고 있으며, 독특한 마스크를 쓰고 목과 손 등의 노출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 기괴한 복식은 혼성 모방의 기법이 함께 혼합되어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특유의 난잡성과 유희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오리엔탈리즘 룩이다. <6-e><sup>39)</sup>는 풍성한 무정형의 아시아 복식을 연상시키는 기이한 형식의 점퍼에 정형화된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된 얼굴 장식과 머리 장식이 결합되어 유희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의 복식이 인체를 은폐하고 억압하는 시각과 괴상하고 저급하다는 서구 중심적 편견에서 모티브를 얻어 표피적인 왜곡을 통해 의외성과 유희성을 추구한 복식이 많이 선보인다. 따라서 아시안 룩의 아이러니 기법은 아시안 룩 중에서 오리엔탈리즘 패션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6-a〉 Romeo Gigli,  
Milan, 2003 S/S

〈6-b〉 Alexander Mc-  
Queen, Paris, 2000 S/S

〈6-c〉 Jean Paul Gaultier,  
Paris, 2002~03 F/W

〈6-d〉 John Galliano,  
Paris, 2003 S/S

〈6-e〉 Christian Dior,  
Paris, 2003~04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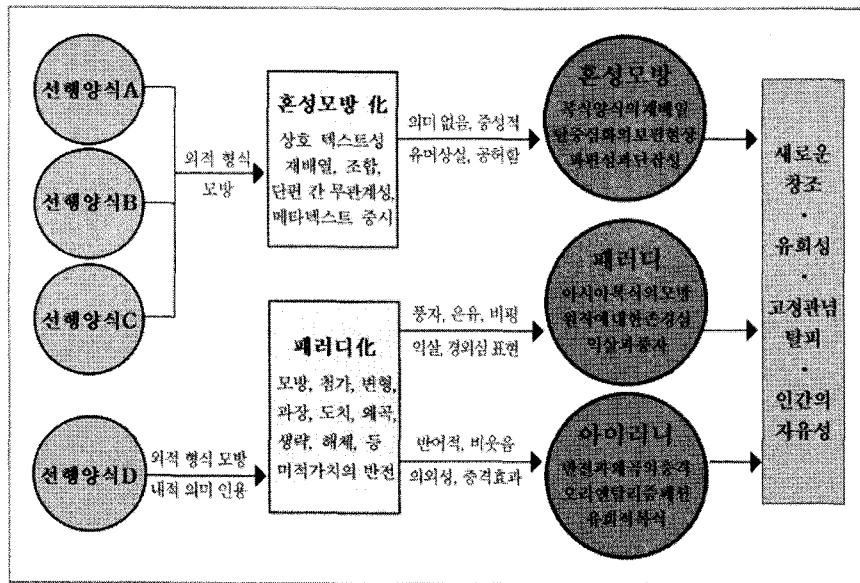
〈그림 6〉 아이러니 기법의 아시안 룩

#### IV.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 기법

아시안 룩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이제는 서구 패션의 가장 중요한 양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매 시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행 경향이 되었다. 그러한 아시안 룩은 아시아 복식의 내면적 정신이 아닌 주로 표피적인 형식만을 차용한 것이다. 아시아 불교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색이나 백색을 비롯한 무채색계열이 많이 사용되어 왔고, 힌두권과 이슬람권 복식에서도 흰색은 성스러운 색으로 간주되어 복식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안 룩에서는 흰색을 포함한 무채색 보다는 화려한 유채색의 복식이 주를 이룬다. 흰색은 동양에서 매우 중요한 색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러한 아시아의 내적 의미에 관심 없는 서구의 패션은 특징적이고 유희적인 원색을 주로 차용해 왔다. 또한 종교적 이념과 사회제도적 사유 등에 의해 반구민의 복식이 주를 이루었던 불교권과 이슬람권의 복식에 반해, 이들에서 영감을 얻은 아시안 룩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식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이것은 아시안 룩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유희성과 무관하지 않다. 장식이 엄격하게 제한된 이슬람의 차도르나 부르카 등의 경우에도 장식이 가미되거나, 의외의 부분을 노출시키는 등의

유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서구패션에 나타난다. 비교적 화려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힌두권의 민속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아시안 룩이 서구패션에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체의 굴곡을 드러내지 않는 아시아의 복식과 달리, 그 복식을 모방한 아시안 룩은 인체 형태의 굴곡을 드러내거나 신체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목격된다.

아시아의 복식에서 모티브를 얻고 조형적 특징을 차용한 아시안 룩에는 아시아 복식 양식의 근본바탕이 되었던 아시아의 여러 이념과 정신, 상징 등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서구의 복식인 아시안 룩에 색동이 등장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동양적인 오행의 질서와 무관하며, 무병장수를 기원하지도 않는다. 힌두풍의 복식에서 금과 은, 유리 장식이 쓰였어도 순결을 상징하지 않으며, 차도르 형태의 복식도 여성의 정숙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 서구의 아시안 룩은 원래의 의미가 사라진 채 유희적인 목적에 의해 외적인 형식만을 빌린 복식인 것이다. 내적인 의미를 차용하는 경우에도 막연한 심상에 의한 미적 가치의 재현에 그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정신을 차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복식을 차용하게 된 아시안 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희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탈중심화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림 7〉 혼성모방, 패러디, 아이러니에 의한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 기법과 메커니즘

아시아의 복식을 모티브로 한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 현상은 혼성모방과 패러디 그리고 아이러니 등의 기법으로 나타난다. 혼성모방은 여려 가지 선행양식을 혼성하여 재배열 한다는 점에서 패러디 또는 아이러니와 다르며, '의미의 상실'이라는 점에서도 이들과 구분된다. 혼성모방은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단편간의 무관계성을 특징으로 재배열과 조합을 통해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선양양식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상실한다. 선행양식의 외적 형식과 내적 의미를 패러디화하여 풍자와 비평을 하는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경외심을 내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러니는 패러디화한 결과물의 의외성과 충격적 효과가 두드러진다. 패러디와 아이러니는 외적 형식 뿐 아니라 내적 의미까지 함께 인용되는 데, 첨가, 변형, 왜곡, 과장, 도치, 해체 등을 통한 미적 가치의 반전을 기법으로 한다. 그 결과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경외심이나 익살, 풍자 등을 표현하게 되며, 아이러니는 반어적인 비웃음이나 의외의 충격효과를 나타낸다. 아시안 룩에 나타난 혼성모방, 패러디 그리고 아이러니는 모두 '독창성의 탈피' 또는 '저자의 죽음'이나 '실종'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조기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법들은 양분법적 고정관념을 탈피한 유희성의 추구이자 인간의 자유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은 패러디, 아이러니, 혼성모방에 의한 아시안 룩의 탈중심화의 기법과 그 메커니즘을 도식화 한 것이다.

## V. 결론

아시안 룩은 서구의 동양에 대한 관심과 동경에서 비롯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서구사상의 타락과 환멸, 문화교류의 확대, 오리엔탈리즘의 시각, 다원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아시안 룩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아시안 룩의 특징과 확산에 관련하여 좀 더 주목할 것은 바로 유희적인 측면이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과 그로 인한 문화적 다원주의와 탈중심화의 경향은 지금까지도 서구 패션에 아시안 룩의 유행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시아 복식양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주된 이데올로기가 종교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의 정신이었다면, 아시안 룩은 그 이데올로기의 해체이다. 이러한 아시안 룩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탈중심화의 특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아

시안 룩은 절충을 선호하는 난잡성으로써 서구의 복식에 아시아의 복식이 결합된 것이며, 아시아의 복식에 깃든 내면의 정신은 사라진 형식의 표피적인 차용이다.

탈중심화 현상을 나타내는 아시안 룩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여러 문화권과 여러 복식양식의 외적 형식을 혼성하여 재배열하고 결합시킨 혼성모방으로서 이는 상호 무관계성을 떠며 내재적 의미와 유머가 사라진 중성적 모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시안 룩의 혼성모방은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복식 양식이나 복식 사조가 하나의 복식에 결합되어 난잡성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아시아 룩은 첨가, 변형, 왜곡, 과장, 도치, 해체 등의 기법을 통한 미적 가치의 반전인 패러디와 아이러니의 특징을 띤다. 선행 양식에 대한 모방을 통해 표현되는 패러디는 익살스러움이나 풍자의 효과를 띠기도 하지만, 원작에 대한 존경심이나 경의를 표한다는 특징이 있다. 아시아 복식의 패러디는 화려한 아시아의 민속복식을 또 다른 시각으로 아름답게 재현하여 아시안 룩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다. 아이러니 기법은 아시아 민속복식 특유의 형식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비꼼으로써 의외성의 충격과 즐거움을 추구한다. 아시아의 복식이 인체를 은폐하고 억압한다는 시각과 과상하고 저급하다는 서구 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되어, 표피적인 왜곡을 통한 의외성과 유희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시안 룩의 아이러니 기법은 아시안 룩 중에서 오리엔탈리즘 룩과 가장 밀접하다.

20세기 후반 이후,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적 다원화 경향으로 늘 새로운 모티브를 찾아야 했던 서구의 패션에 있어서 아시아의 복식은 끝없는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매 시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행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아시안 룩의 확산과 지속은 아시아와 아시아의 복식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고,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이며, 패션문화의 탈중심화 현상의 반영이다. 아시안 룩은 더 나아가 기존의 사상체계에 내재되어 인간을 무력화시키거나 속박하는 성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노력과 인간의 자유성을 표현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서구중심주의(West-centrism)는 서구의 우월성을 주장

하는 '서구예외주의(Western-exceptionalism)'와 비서구 문명을 왜곡되게 지칭하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으로 구성된다. 원래 오리엔탈리즘은 근동(近東) 지역의 이슬람문명에 대한 지식과 편견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전체는 물론이고 비서구 세계에 대한 유럽인들의 지식과 편견의 총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 2) Radhakrishnan, S. (1990). *Eastern Religion and Western Thou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251.
- 3)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복식미 엿보기*. 서울: 교문사, p. 261.
- 4) Hall, S. (1968). *The Hippies: An American Moment*. Birmingham: University of Birmingham, p. 5.
- 5) Skov, L. (2003). Fashion-Nation: A Japanese Globalization Experience and a Hong Kong Dilemma. In S. A. Niessen, C. Jones, & A. M. Leshkowich (Eds.), *Re-Orienting Fashion*(pp. 215-243). Oxford: Berg, p. 216.
- 6) Corliss, R. (1993. 9. 13). Pacific Overtures, *Time*, retrieved 2010, July 27, from <http://www.time.com>
- 7) Jones, C. & Leshkowich, A. M. (2003). Introduction: The Globalization of Asia Dress. In S. A. Niessen, C. Jones, & A. M. Leshkowich (Eds.), *Re-Orienting Fashion*(pp. 1-48). Oxford: Berg, pp. 5-6.
- 8) 노길명, 정태환, 김웅렬, 서용석, 혼택수 (1998). *문화인류학의 이해*. 서울: 일신사, pp. 111-112.
- 9) 배국원 (2000). *현대 종교철학의 이해: 종교에 대한 후기 근대적 접근*. 서울: 동연, p. 278.
- 10) Hassan, I. (1987). Toward a Concept of Postmodernism. 이충무 역 (200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정립*을 위하여, 김육동(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pp. 54-75).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 69-70.
- 11) Cox, H. (1984). *Religion in the Secular City: Toward a Postmodern Theolog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p. 43.
- 12) Featherstone, M (1991). *Consumer culture & Postmodernism*. 정숙경 역 (1990).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문화*. 서울: 현대미학사, p. 25.
- 13)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 반미학(Anti-Aesthetics), 열린 패션(Open-Fashion)을 중심으로. *복식*, 38, pp. 369-392.
- 14) Taylor, B. (1987). *Modernism, post-modernism, realism: a critical perspective for art*. 김수기, 김진송 역 (1993).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리얼리즘*. 서울: 시각과 언어, p. 9.
- 15) Jameson, F. (1991).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p. 96.
- 16) Hamilton, R. (1956).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ng?, La Collage, retrieved 2010, September 7, from <http://lacollage.blogspot.com>
- 17) Lacroix, C., 2003 S/S collection. *Collezioni Donna*.

- No. 90, p. 459.
- 18) Galliano, J., 2004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101, p. 357.
- 19) Gaultier, J. P., 2005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108, p. 214.
- 20) Onofri, R., 2000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77, p. 355.
- 21) Galliano, J., 2002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89, p. 284.
- 22) Hutcheon, L. (2000). *A Theory of Parody*.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 6.
- 23) Newman, M. (1986). *Critical Discourses of the Visual Arts*. 양현미 역 (1995). 시각예술에 관한 비판적 담론들, 이영철(편), *현대미술과 모더니즘론* (pp. 399-454). 서울: 시각과 언어, p. 442.
- 24) 김옥동 (2004).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예술·문화*. 서울: 민음사, p. 372.
- 25) 고현진 (1994).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86-87.
- 26) Duchamp, M. (1919). Mona Lisa, *Baroque in Hackney*, retrieved 2010, September 7, from <http://baroqueinhackney.wordpress.com>
- 27) Chalayan, H., 2002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89, p. 284.
- 28) Haute Couture Brides, 2004 S/S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99, p. 343.
- 29) Ungaro, E., 2003 S/S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90, p. 459.
- 30) Cavalli, R., 2005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107, p. 216.
- 31) Dior, C., 2003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95, p. 301.
- 32) Seo, B. (2008). Critical Discussion on the 'Orientalism' in Fashion 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6), pp. 902-910.
- 33) Behler, E. (1990). *Irony and the discourse of modernity*. 이강훈, 신주철 역 (2005). *아이러니와 모더니티 담론*. 서울: 동문선, p. 169.
- 34) Chalayan, H. 1998 SS Womens Collections, *Unconscious and Irrational*, retrieved 2010, September 13, from <http://unconscious-and-irrational.blogspot.com>
- 35) Gigli, R., 2003 S/S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92, p. 40.
- 36) McQueen, A., 2000 S/S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73, p. 65.
- 37) Gaultier, J. P., 2002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89, p. 300.
- 38) Galliano, J., 2003 S/S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92, p. 330.
- 39) Dior, C., 2003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 95, p. 409.